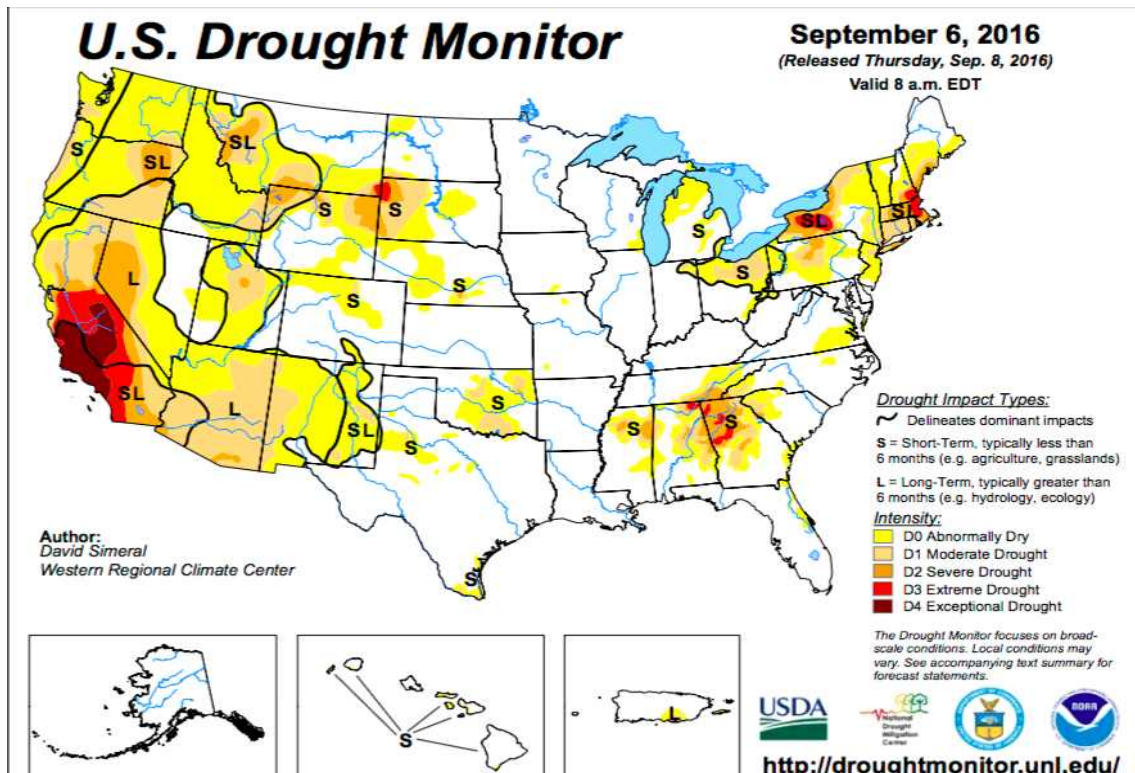


9월 1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37)

□ 미국 기후 현황(9/4~9/10)

지난 주 큰 비를 내렸던 1급 허리케인 Hermine은 소멸했지만, 남아있는 구름의 영향으로 Long Island 주변 지역에 계속해서 비를 내렸다. 9월 6일에는 허리케인 Newton이 멕시코의 Baja 반도에 상륙했으며, 이로 인해 아리조나 남동부와 뉴 멕시코 남서부에서는 2~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허리케인의 소멸 후에도 남아있던 구름들의 영향으로 주요 옥수수 재배지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1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앞으로 계절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수확을 앞둔 옥수수와 대두 등의 병해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밖의 남부와 동부 일대에서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수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북동부 및 걸프 연안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내렸다. 미시시피 강 중상류에서부터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F 정도 높았다.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부터 서부의 내륙 산간지역 일대에서도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북서부에서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북서부 내륙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낮았다. 북부 평원에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막바지 수확작업이 진행되었고, 부와 남부 평원에서는 따뜻한 가운데 소나기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9/5~9/11)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북동부 지역의 경우 평년에 비해 기온이 6°F 이상 높았다. 로키산맥 북부에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고, 아이다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F 이상 낮았다. 한 주간 내린 비의 양은 평년 수준에 가까웠지만, 미시시피강 상류 및 캔자스 등에서는 평년에 비해 더 많은 비가 내렸다.

■ 옥수수

9월 11일 기준, denting이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5%p 앞서는 수치이다. 전국적으로 황숙기가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33%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는 수치이다. 18개 주 가운데 15개 주에서 기후조건이 양호한 덕분에 지난 한 주간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옥수수의 수확률은 5%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2%p 낮은 수치이다. 아이오와에서도 수확작업이 시작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74%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6%p 높은 수준이다.

■ 대두

지난 9월 11일 기준,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역의 비율은 26%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4%p 낮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높은 수치이다. 알칸사스, 노스 다코타, 테네시 및 위스콘신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20%p 이상 증가했다. 응답자의 73%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2%p 높은 수준이다.

■ 면화

9월 11일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떨어진 지역의 비율은 41%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4%p 낮은 수치이다. 텍사스 남부에서는 계속해서 수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Blackland, Costal band 등에서는 비로 인해 수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확률은 4%이며, 전체 응답자의 47%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5%p 낮은 수준이다.

■ 쌀

9월 11일 기준, 전체 수확률은 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p 높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1%p 높은 수치이다. 알칸사스, 미시시피, 미주리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10%p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55%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3%p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7%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9/4~9/10)

■ 유럽: 서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남부에서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렸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북부 및 독일 남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도 평년에 비해 2~6°C 정도 높아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 등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평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60일 이상 지속되면서 토양 수분 함량이 낮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북부에서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폴란드에서부터 발틱 연안 국가들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5~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동부 유럽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다뉴브 강 저지대에서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대체적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고, 보다 서부의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에서도 맑은 가운데 기온이 평년에 비해 3~8°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서부와 남동부에서는 지난 60일 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25~50% 수준에 그치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겨울밀 파종작업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 동아시아: 북동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남부의 양쯔강 일대와 북부 평원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서 2~4°C 정도 높았고, 여름작물의 성장상태도 좋은 편이다. 남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일본에서도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한반도 일대에서도 동부를 중심으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남부와 동부에서는 10~3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인 서호주 일대에서는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고, 동부와 남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대 2°C까지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동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Buenos Aires 동부에서부터 Formosa 동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최대 25mm의 비가 내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Buenos Aires 서부에서부터 Salta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북부 일대의 평균 기온은 평년에 비해 조금 낮았고, 낮 최고기온도 평년에 비해 3°C 정도 낮았다. Santiago del Estero에서는 밤 동안 기온이 0°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Cordoba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30°C까지 오르는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6%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8%에 비해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에서는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do Sul 남부 및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지역에 따라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고,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서도 비가 내렸다. Sao Paulo 서부와 남부 등에서도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Minas Gerais, Espirito Santo 등 커피 산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중부 일대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까지 오르고 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5일 기준 밀의 수확률은 2%이며 그 밖의 70%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아직 filling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